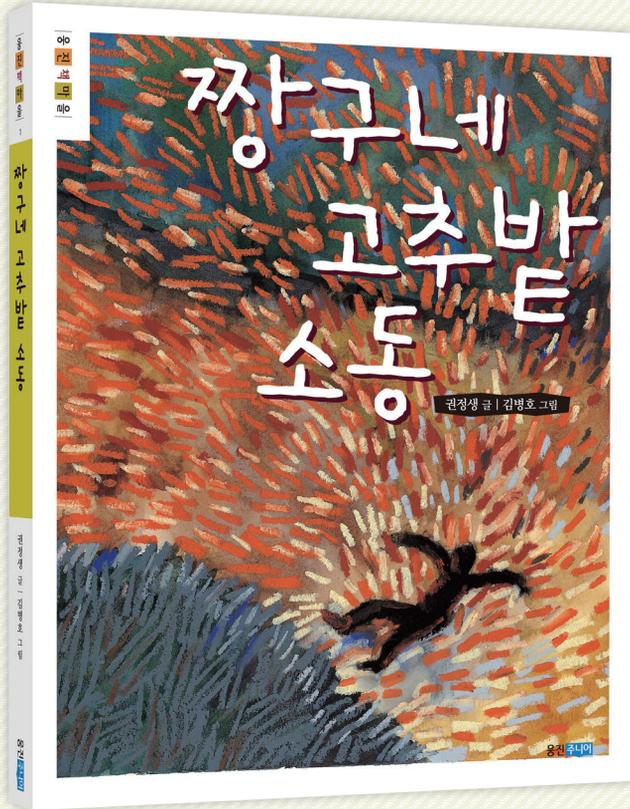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권정생 글 | 김병호 그림 | 웅진주니어 | 185쪽

##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짱구네 고추밭 소동>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짱구네 고추밭 소동'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과 책 제목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① '어리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진 말이라고 했나요?

어리다는 것은 아직 정직하고 용감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어린 새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시원한 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우듯이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산꼭대기의 허수아비는 진짜 허수아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새들은 정말 한꺼번에, 모두 한꺼번에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

② 산꼭대기의 허수아비가 진짜 허수아비밖에 되지 못한 이유를 쓰세요.

⇨

## 어휘력 속속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창걸이 오빠도 할머니가 무릎을 기워 주신 바지를 입었습니다.

-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고추들이 무언가 자기들을 거머잡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라 잠을 깬습니다.
- 연이는 돌멩이발에 흩어진 땅콩을 얼른 주워 가지고 창덕이한테 한 번 더 잔뜩 흘겨 주고는 핵 돌아가 버렸습니다.
- 다행히 외양간 바닥에는 온통 폭신한 보릿짚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어릿할 뿐이었습니다
- 엄마랑 아빠가 없어 쓸쓸했었는데, 지금은 깨끗이 가시었습니다.

(나) · 고추밭 근처는 코가 아리고, 눈이 쓰립니다. 고추들은 ㉠     가 아닙니다.

- 그 많은 노점 상인들은 ㉡     을 떨며 치워 놓은 물건들을 그냥 둔 채, 잠깐 동안 자동차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손으로 휘감아 잡다.
- ② 조금 쓰리고 따가운 느낌이 있다.
- ③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
- ④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어 못마땅하게 노려보다.
- ⑤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만만하게 여길 만큼 평범한 사람.
- ㉡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

㉠ :

㉡ :

## 어휘력 속속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건넛산 비탈밭 한 뼨기로는 먹고살아 갈 수 없어, 장날마다 달구지를 몰고 마을 사람들의 ( )을 실어 날랐습니다.

· 쌀짐도 싣고, 고추 부대도 싣고, 새끼 돼지를 담은 ( )도 실었습니다.

· “할아버지, 이 쌀자루 저쪽 ( )까지 들어다 주세요.”

· 빨래터에 갔던 며느리가 고무 ( )에 빨래를 담아 이고 돌아왔습니다.

· 비누랑 소금이랑 고무신이랑 ( )을 사 가지고 종종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 소금도 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절인 고등어도 한 ㉠손 사 왔습니다.

· 한 ㉡줄 아니면 두 ㉢줄씩, 귀리를 디딜방아에다 뿜아 죽을 쑤면 검은색 구정물 같은 물이 우러난다.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일용품 : 날마다 쓰는 물건.
- ② 싸전 :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 ③ 장짐 : 장에서 샀거나 또는 팔 물건을 꾸린 짐.
- ④ 자배기 :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 ⑤ 다래끼 : 아가리가 좁고 바닥이 넓은 바구니. 대, 싸리, 칩덩굴 따위로 만든다.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주먹의 준말.

##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

이름 :

💡 다음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장짐을 지고 이십 리나 되는 장터까지 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감나무 집 할아버지의 달구지에 싣고 조금씩 샅을 주었습니다. 쌀자루 하나에 오십 원도 받고, 아주 큰 것은 백 원도 받았습니다. / 장에서 돌아올 땐, 무거운 농기구랑 비료 부대도 싣었습니다. / 이래서 장날마다 감나무 집 할아버지는 장짐 샅을 받아 아쉬운 대로 다섯 식구의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나) 그날도 할아버지는 장에 가기 위해 소달구지를 몰고 느티나무 밑으로 일찍 나갔습니다. / 그런데 거기엔 벌써 큰 기와집 경운기가 버티고 서서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 마을 사람들은 큰 기와집 아들이 부리는 기계를 신기하게 들여다보면서, 가지고 온 짐을 거기에다 다투어 싣었습니다. / 할아버지는 어쩐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큰 기와집 아들과 미리 짜고서 경운기를 사 들여 와서, 저렇게 보란 듯이 짐을 싣는 것만 같았습니다. /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버릴 것처럼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 이만치에다 달구지를 세워 놓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 아직 신품이어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경운기엔, 소달구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까지 가장자리에다 태웠습니다.

1) (가)에 나타난 ‘소달구지’와 ‘경운기’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p>① 할아버지의 소달구지 : 장터까지 가는 마을 사람들이 무거운 장짐을 싣었고,</p> <p>_____</p> <p>_____</p> <p>_____</p>	<p>↔</p>	<p>② 큰 기와집의 경운기 : 아직 신품이어서 반질반질 윤이 났고, _____</p> <p>_____</p> <p>_____</p>
---	----------	--

2) (나)에서 ‘할아버지’는 ‘경운기’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쓰시오.

↳

## 짱구네 고추밭 소동

이름 :

💡 다음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기고추들은 한결같이 코 모양이 그렇습니다. 꺾쪽꺾쪽 장난감 코끼리 코 같습니다. 연한 초록색이다가 진초록빛으로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차츰 빨강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기고추들의 예쁜 마음씨입니다. 겉으로 갈아입은 옷이 아니고, 가슴으로부터 곱게 나타내는 마음 빛깔입니다. 티 하나 없이 새빨강게 불꽃처럼 타는 마음 빛깔입니다. / 쓰르라미들이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시원히 우는 한낮이면, 빨간 장난감 코끼리 코들은 빨간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나) 상수리나무 숲 속은 한층 더 어두워 길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둑은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 그때, 바로 앞 숲에서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들쥐 한 마리가 풀 사이로 달아났습니다. 도둑은 얼결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면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도둑이 뒤로 나자빠질 때 고추 자루가 바위에 '팡!' 부딪쳤습니다.

그 순간,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고추 자루가 폭발했습니다.

1) (가)에서 '아기고추들'이 빛깔이 달라지는 것은 '아기고추들'의 예쁜 마음씨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한 과정을 요약하여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2) (나)에서 '도둑'이 뒤로 나자빠지게 된 이유를 모두 찾아 쓰시오.

⇨

## 새끼 까치와 진달래꽃

이름 :

💡 다음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픈 다리를 치료해 줘야죠. 제 집도 모르고 어미도 형제들도 없이 혼자 울고 있었으니, 그냥 두면 죽을 것 아니겠어요?”

“하기는 그렇구먼.” /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에서 새끼 까치를 받아 들었습니다. 새끼 까치는 공교롭게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까치를 보듬어 안은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든 30년 전의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아들딸 삼남매를 피난길에서 잃어버리고 포탄에 맞아 다리를 다친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나) 새끼 까치는 한참 동안 둘레를 돌아보더니, 함께 왔던 다른 까치와 함께 훨훨 날아서 다시 산 너머로 가 버렸습니다. / “영감, 저놈이 아마도 암놈이었던가 봐요. 몸뚱이가 아주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함께 데리고 온 건 제 신랑인가 봐요. 좋은 데 시집간 모양이죠?” / “그래, 시집갔다가 친정집이 궁금해서 찾아와 본 거로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끼 까치가 날아간 산 너머 저쪽을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6·25 때 헤어진 어린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 ‘순득이는 마흔이 훨씬 넘었지. 그리고 둘째놈 용득이랑 막내놈 기득이랑……. 아아, 보고 싶구나.’

1) (가)~(나)에서 ‘새끼 까치’에게 있었던 일이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p>(가) : 할머니가 안고 온 새끼 까치를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	<p>(나) : 새끼 까치는 한참 동안 친정집 둘레를 돌아보더니, _____</p> <p>_____</p> <p>_____</p>
--	---	--

2) (가)와 (나)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끼 까치’를 보고 생각한 것을 쓰시오.

⇒ (가) :

(나) :

## 승규와 만규 형제

이름 :

💡 다음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승규는 얼른 편지를 펼쳤다. / 머리 인사는 대충 읽고 아래쪽으로 빨리 읽어 내려갔다. / ‘……만규야, 정말 미안하구나. 누나가 학교 다닐 때 못 간 수학여행을 너에겐 꼭 가도록 해야겠다고 노력했는데, 그만 되지 않는구나.’

승규는 콧날이 찡하게 더워졌다.

자기도 만규처럼 울고 싶었다. 벌써 한 달 전에 만규는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는 누나한테, 이번 가을에 학교에서 가는 설악산 수학여행을 갔다 올 비용을 부탁했던 것이다. 만규는 편지를 띄운 그 다음날부터 누나의 답장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누나가 틀림없이 수학여행비 이만 원을 부쳐 줄 것이라 믿었다. / 그런데 그 회답이 한 달 만인 오늘에야 왔다. 못 보내 줘서 미안하다는 말만 적힌 편지가.

(나) “만규야, 이것 받아라.” / “네에?” / “이걸로 수학여행 가도록 해라.” / “…….”

만규는 얼른 승규를 쳐다봤다. 약초 캐러 다니던 이유를 번쩍 떠올렸기 때문이다.

“형한테 고맙다고 해라.” / 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약초 판 건 겨우 만 원밖에 안 되는걸.” / “…….”

만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1) (가)~(나)에서 ‘승규’와 ‘만규’에게 있었던 일이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승규가 수학여행을 갔다 올 비용을 못 보내 줘서 미안하다는 \_\_\_\_\_

\_\_\_\_\_

\_\_\_\_\_

\_\_\_\_\_



(나) : 승규가 약초 캐러 다니면서 약초를 판 돈으로 \_\_\_\_\_

\_\_\_\_\_

\_\_\_\_\_

\_\_\_\_\_

2)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누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쓰시오.

⇨

## 쌀도둑

이름 :

💡 다음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 선재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는 선재의 얼굴과 그 옆에 잔뜩 겁을 먹고 서 있는 웅재를 내려다보았다.

머리카락과 눈썹과 콧등이 온통 쌀겨 먼지로 뒤덮인 얼굴이었다.

그 얼굴로 일꾼 아저씨는 말없이 웅재네 형제를 건너다보기만 했다.

그렇게 잠시 건너다보던 아저씨는, 자루를 하나 건네주었다. 방금 선재가 쌀을 쓸어 넣다 말고 두고 쫓겨 나온 그 자루였다. / 그 조그만 자루에는 쌀이 아구까지 차 있었다. / “갓고 가 거라. 가난한 사람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 “…….”

(나) 그날, 장터와 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젊은이가 만세를 부르고, 지서에서 나온 경찰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 저녁때, 많은 젊은이가 지서로 잡혀갔다. / 선재네는 그 가운데 정미소 아저씨도 섞여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 / 선재가 아저씨의 체포 소식을 들은 것은 며칠 뒤였다.

웅재와 함께 지서 앞까지 달려가 봤지만 아저씨가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 ‘벌써 광복이 되고 두 해가 다가오는데…….’ / 선재는 일꾼 아저씨가 몹시 궁금했다.

1) (가)에서 등장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선재와 웅재 : 머리카락과 눈썹과 콧등이 온통 쌀겨 먼지로 뒤덮인 얼굴로 \_\_\_\_\_

\_\_\_\_\_

\_\_\_\_\_

\_\_\_\_\_

② 아저씨 : 말없이 웅재네 형제를 건너다보다가 \_\_\_\_\_

\_\_\_\_\_

\_\_\_\_\_

\_\_\_\_\_

2) (나)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웅재네 형제’가 지서 앞까지 달려갔던 이유를 쓰시오.

⇨

##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다

이름 :

💡 다음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곳 새들의 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날개를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물론 날개를 마음껏 쳐 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새들은 모두 죽지를 축 늘어뜨리고 두 발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조그만 굴뚝새로부터 커다란 독수리까지 한결같이 어정어정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녀도 잘만 살면 되는 거야.” / “기어 다녀도 배만 땡땡 부르면 되는 거야.” / 할아버지 할머니 새들은 오히려 기어 다니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새들은 가끔 날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서 투덜거렸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열심히 기어 다녔습니다.

(나) “할아버지, 정말은 우리도 날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먼 곳도 가고 싶어요.” / “날고 싶으면 나는 거다. 다만 날려거든 모든 새들이 한꺼번에 날면 되는 거다. 허수아비는 겁쟁이여서 모두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면 제풀에 날뛰다가 죽어 버릴 거야.” / “아아, 맞았어요. 모두 함께 날면 허수아비는 꿈쩍 못해요.” / 어느새 할아버지제비가 가르쳐 준, 한꺼번에 나는 좋은 생각이 새들의 나라에 퍼져 나갔습니다.

1) (가)에서 ‘새들’은 걸어 다니거나 기어 다녀도 잘만 살거나 배만 땡땡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2) (나)에서 ‘할아버지제비’가 가르쳐 준, 좋은 생각은 무엇인지 쓰시오.

⇨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짱구네 고추밭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                  2) 풀밭에서 사람 모양의 검은 형체가 뒤로 넘어지고 있고, 밤하늘에 고추가 불꽃처럼 날아다니고 있다. 책 제목은 흰색으로 '짱구네', '고추밭', '소동' 3행으로 쓰여 있다.                  3) ① 아직 정직하고 용감하다.                  3) ② 새들이 허수아비를 피하지 않고 한꺼번에 날아다니게 되어서</p>
4쪽	<p>1) ⑤, ①, ④, ②, ③                      2) ㉠ : 여간내기, ㉡ : 야단법석</p>
5쪽	<p>1) ③, ⑤, ②, ④, ①                      2) ㉠ : ㉡, ㉢ : ㉣</p>
6쪽	<p>1) ① 장에서 돌아올 때는 무거운 농기구랑 비료 부대를 실었음                  ② 소달구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으며 사람까지 가장자리에다 태웠음                  2) 할아버지는 어쩐지 경운기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고, 주저앉아 버릴 것처럼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음</p>
7쪽	<p>1) (예시답안) 아기고추들의 빛깔이 연한 초록색이었다가 진초록빛으로, 차츰 빨갈게 달라지는데, 이것은 가슴으로부터 곱게 나타내는, 새빨갈게 불꽃처럼 타는 마음 빛깔이라는 것이다. 아기고추들의 빛깔의 변화를 예쁜 마음씨라고 참신하게 표현한 것 같다.                  2) 상수리나무 숲 속은 한층 더 어두워 길을 분간할 수 없었고, 앞 숲에서 들쭉 한 마리가 풀 사이로 달아났고,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에 발이 미끄러져서</p>
8쪽	<p>1) (가) : 받아 들었던 할아버지는 공교롭게도 새끼 까치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                  (나) : 함께 왔던 제 신랑인 다른 까치와 함께 훨훨 날아서 다시 산 너머로 가 버렸음                  2) (가) : 할아버지의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든 30년 전의 전쟁                  (나) : 6·25 때 헤어진 어린 자식들</p>
9쪽	<p>1) (가) : 누나의 답장을 읽고, 콧날이 짙하게 더워졌으며 만규처럼 울고 싶었음                  (나) : 민규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음                  2)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며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p>
10쪽	<p>1) ① 아저씨에게 다시는 안 그럴 것이라며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빌었음                  ② 아구까지 차 있는 자루를 건네주며 가난한 사람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며 갖고 가라고 말했음                  2) 광복이 되고 두 해가 다가올 때 / 정미소 아저씨의 체포 소식을 들어서</p>
11쪽	<p>1) (예시답안) 새들의 나라는 날아다니는 것은 물론 날개를 마음껏 쳐 보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새가 날지 않고 잘만 살거나 배만 땡땡 부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편안함만 추구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날지 않는 새는 이미 새가 아닌 것이다.                  2) 모든 새들이 한꺼번에 날면 겁쟁이 허수아비는 제풀에 날뛰다가 죽어 버릴 것임</p>



# 응진주니어

값 7,500원



ISBN 978-89-01-04609-9  
ISBN 978-89-01-03863-6 (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